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첫 번째 이야기,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계절에 그녀들을 만났습니다. 볼링을 배워보고 싶어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등 참여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볼링이라는 한 단어로 뭉친 꽃보다 아름다운 그녀들의 이야기 한 번 만나볼까요?

‘볼링볼링’활동은 인천사회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성인여성발달장애인 체육프로그램으로 매주 화,목 성인여성발달장애인분들이 모여 볼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성격이지만 볼링을 배울 때는 그 누구보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정적으로 배우는 그녀들입니다.

직접 볼링화를 대여하는 방법, 스스로 공을 잡아보는 방법, 볼링 기본 스텝을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며 처음에는 어색했고, 서툴렀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들이 스스로 볼링화를 대여하고, 볼링공을 잡아보며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스텝을 알아보며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을 가운데로 굴리기는 어렵지만 공이 도랑에 빠져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볼링을 치고 나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에게 격려도 해주며 마음과 신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하지만 현재 그녀들은 ‘볼링볼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성장하였습니다. 누군가와 손뼉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밖에 나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던 그녀들이 현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를 응원하고, 손뼉을 마주하고 있으며 활동에 매일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그녀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그녀들의 볼링에 꽃을 피우는 삶의 이야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진정 가치 있는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봉사활동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활동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 작은 것을 소중히 나누는 봉사일 것입니다.



주안애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자발적인 지역사회활동으로 이뤄진 티움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서 모인 10명의 고등학교 청소년들로 이뤄진 티움봉사단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봉사단을 통해 그냥 봉사가 아니라,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봉사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핵가족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인들은 가족에서 소외가 되기 일쑤이며 그로인해 노인들의 자살률 또한 높아지는 현실로 인해 사회 문제를 띠고 있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활동을 직접 진행하고 말뚝이 되어줌으로써 1·3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심정2동 경로당과 연계를 맺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카네이션 방향제도 만들어보고, 앞으로 활동을 같이 하게 될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과의 활동이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예쁜 우리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참여하니 봉사의 의미와 즐거움이 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나누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학업으로 많이 바빠텐데 책임감 있게 활동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담당자로서 행복하며 뿌듯합니다.

티움봉사단 활동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구체적인 나눔 실천의 방법과 그 중요성을 깨달아 책임감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티움봉사단 활동은 심정2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만나 함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